

존경하는 교장선생님

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새 학기를 맞아 활기차게 시작하는 교정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1월 취임 후 교장선생님께 첫 편지를 올립니다.

지난해 교육부는 학생 자살률을 행복교육의 척도로 보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그 결과 자살 학생수가 2012년 139명, 2014년 118명, 지난해는 93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. 이는 오로지 교장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.

그런데 개학 후 며칠도 되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학생들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

교장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,

아이들에게 신학기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과,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등이 함께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

이 시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부모와의 관계나 가정환경은 어떠한지, 친구들 간의 따돌림이나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은 없는지, 유난히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. 특히, 교육부가 안내해드린 신학기 학교생활 적응 상담주간(3월 3~4주)에는 취약학생 집중 상담, 야간 상담 등 학생·학부모와 상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.

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“많이 힘들구나, 도와줄게, 잘 이겨낼 거야”라는 위로와 공감의 말들은 매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는 매월 “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”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학부모님께도 전달하시고, 잘 활용하시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저 또한 학생들의 꿈과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, 학생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.

2016. 3. 14.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

이준식